

HK market insight



미국 이란 종전, 남은 손익계산서

흥국투자전략 이영원 / (02)739-5848 / youngwon@heungkuksec.co.kr

- 미국과 이란간 종전 협상의 타결. 트럼프 대통령 SNS를 통해 공개
- 종전 합의안은 전쟁 이전 질서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
- 전쟁 이후 당분간 고유가 기조 유지되며 전후 세계질서의 변화 진행될 전망

미침내 타결에 도달한 종전 협상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이 종전에 다다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협상이 완료되었음을 공지했고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재개되었음을 밝혔다. 물론 협상 마지막까지 진통이 이어져 지난 주말 기대되던 협정 서명식은 열리지 못했고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으로 다시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지만 최종 합의에 도달하게 된 것이다.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의 합의(종전 MOU)는 호르무즈의 즉각 개방(이란의 모든 상업용 선박에 대한 즉각개방과 미국의 이란 봉쇄 전면 해제), 이란의 핵무기 포기(MOU체결 후 최종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이란은 현재의 핵 프로그램을 유지하나, 추가적인 핵 시설 확장, 우라늄 농축 자제), 농축 우라늄에 대한 이란내 희석(이란 외부로 반출하는 대신 이란 내에서 희석, 구체적인 절차와 방식은 MOU체결 후 60일간의 협상에서 논의), 250억달러의 이란 해외동결자금 해제와 일정기간 이란 원유 제재의 유예 등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식 협정의 체결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고, 양측의 공식적인 확인을 거친 내용은 아니지만, 협상의 주요 의제로 거론되던 대부분의 내용이 포함된 합의 조건인 것으로 판단되며, 전쟁이 일방의 완벽한 승리로 마무리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이란 입장에서는 전쟁을 거치며 지도자의 사망 등 정치체제의 존속 위기를 겪었고 군과 민간인의 인명피해, 산업 시설의 파괴 등 피해를 입었으며 미국은 전쟁 이전의 중동질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종전안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전쟁 개시 시점의 상황과 목표를 감안하면 수긍하기 어려운 종전 조건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세계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석유 재고량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종전에 대한 압박이 높아졌으며, 석유 생산 차질이 연장될 경우 석유 시장의 혼란이 임계점을 넘어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선택인 것으로 판단된다.

EIA의 최근 단기전망에서 OECD의 석유재고는 2월말 2억 8천만 배럴에서 2억 6천2백만 배럴로 감소한 것을 추정되고 있다. 연말에는 2억 3천만 배럴 이하로 예상되면서 재고 하한이라 여겨지는 2억 배럴 수준에 근접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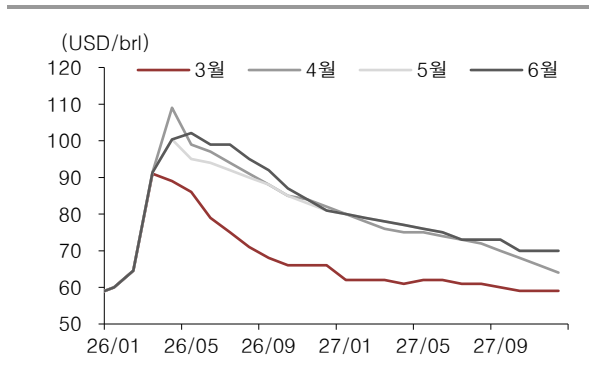
생산 차질 규모는 하루 13백만 배럴 수준으로 한달간 생산 차질량은 3억8천만배럴 수준에 달한다. 3월부터 5월 말까지 누적 생산 차질 규모가 10억배럴을 넘어서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소비의 위축에도 불구하고 재고소진이 가파르게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의 석유 수급 구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더 이상의 생산 차질이 용인되기 어려운 시점에 다가서면서 종전 합의가 강제되는 양상이다.

종전 합의에 도달한다 해도 생산시설의 복구와 소진된 재고의 보충 수요 등으로 당분간 유가의 급락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며 EIA의 단기전망에서 WTI, 브렌트유의 연말 가격은 각각 81달러, 86달러로 예상되고 있다.

각 당사국은 전쟁으로 인한 피해의 복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지정학적으로 취약한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경제권의 경제적 지위 변화 등도 불가피한 변화 방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탈석유 에너지 전환 노력도 보가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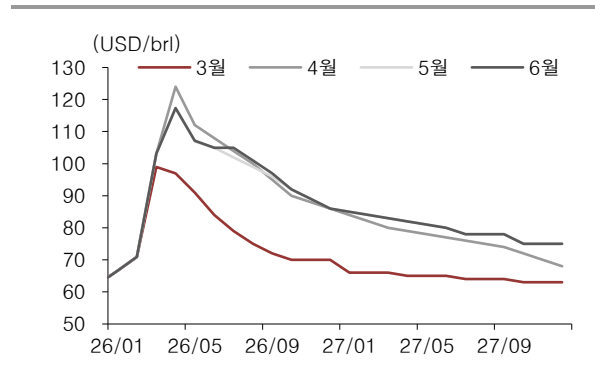
전쟁으로 인한 세계 질서의 변화는 유가의 등락과 전쟁비용의 문제 등에 국한되지 않고 지정학적 구도와 세계 산업 구조의 변화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 EIA WTI 유가 전망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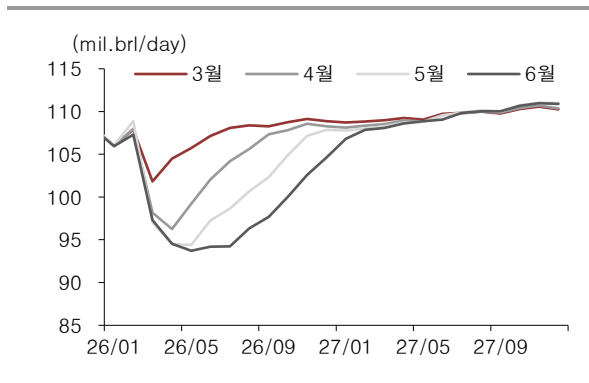
자료: EIA,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EIA 브렌트 유가 전망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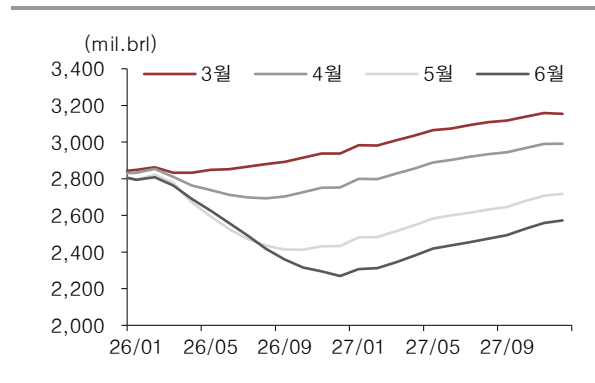
자료: EIA,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EIA 전세계 석유 생산량 전망의 변화



자료: EIA,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EIA 전세계 석유 재고량 전망의 변화



자료: EIA,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보고서 제공시점 현재 상기 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동 보고서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는 상기 종목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보고서 제공시점 기준으로 지난 6개월간 상기 종목의 유가증권 발행에 주간사로 참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보고서는 당사 고객들의 투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가 그 신뢰성이나 완전성을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보고서가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보고서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동의없이 무단 복제, 대여, 전송, 변형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흥국씨앗체

본 보고서에 사용된 흥국씨앗체는 흥국의 기업철학 모티브를 반영한 글씨체로서, 세계 3대 디자인상인 독일 '2015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커뮤니케이션 분야 브랜드 아이덴티티 부문 본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친근하고 희망적인 느낌의 흥국씨앗체는 고객존중과 으뜸을 지향하는 흥국의 아이덴티티를 부각시킵니다.



- 주소 (본사)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32 (여의도파이낸스타워 14층)
(리서치센터)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32 (여의도파이낸스타워 6층)
- 전화번호 영업부 대표 02)6742-3635
- 팩스 영업부 대표 02)739-6286